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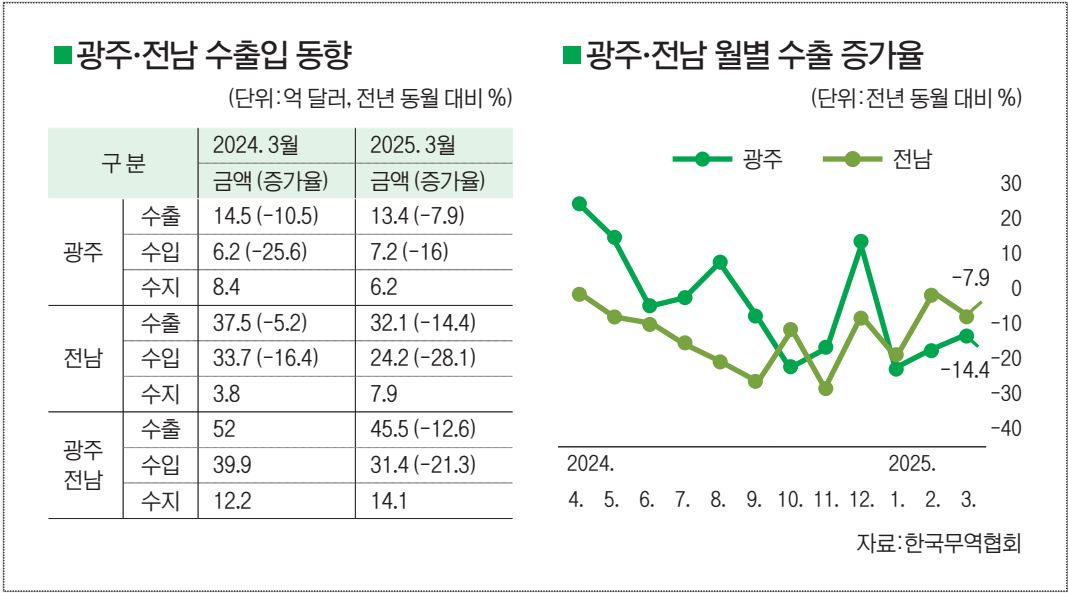
3월 광주·전남 수출 12.6% 감소…무역수지는 ‘불황형 흑자’

〈전년 동월 대비〉

광주, 반도체 등 줄고 하이브리드·디젤 차량 등 수출 호조
전남, 선박·김 수출 급증 속 석유·화학 제품 수출량은 급감

미국 트럼프발 경제 불안과 세계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광주·전남 3월 수출·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수입보다 수출 실적이 많아 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는 하이브리드·디젤 차량·자동차 부품이 수출실적을 견인했고, 전남은 ‘K-선박’ 인기와 김 열풍에 힘입어 농림수산물 수출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2.6% 감소한 45억 5000만 달러였다. 수입은 31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3% 줄었다. 광주와 전남 수출은 각각 7.9%, 14.4% 감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각각 10위, 7위를 기록했다. 광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한 13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자동차·자동차 부품·공기 조절기·냉난방기 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반도체

와 냉장고 등의 수출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경우 차량 품목별 수출 증감 혼조 속에서도 하이브리드·디젤 차량의 수출 증가로 0.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 41%, 디젤 30%의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은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해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월(1월 대비 114% 증가)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기 조절기 부품과 냉방기 부품 수출도 증가했다. 다만 전방산업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의 전체 수출이 25.3% 감소해 전체 수출액은 줄었다. 특히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싱가포르 수출이 54%나 감소했다. 광주의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캐나다·말레이시아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싱가포르·중국·호주 등의 수출은 부진했다. 특히 미국 수출 증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38%)와 공기 조절기 부품(2907.9%)이, 캐나다 수출은 가솔린 자동차



1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농림수산물 수출은 ‘K-해산물 열풍’으로 김(53.1%)과 수산가공품(24.3%) 등이 인기를 얻으며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선박의 경우 LNG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 수출이 늘어 382.6% 증가했다. 특히 선진 해운국으로 분류되는 덴마크(769.4%)로의 선박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석유제품 수출은 49.3%, 석유화학제품(MTI 21)은 21.6% 감소했다. 철강판도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낮은 제품가·시장 둔화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18.5% 줄었다. 국가별로 프랑스(436.7%)·몰타(14만 4752.2%)로의 화물선 수출이 크게 늘었고, 중국으로의 합성수지(-33.0%)·석유제품(-41.6%) 수출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1차 산품 수입은 원유(-15.5%)·유연탄(-45.7%) 등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5.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재(-36.3%)와 소비재(-24.0%) 수입 역시 줄어들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해양에너지 임직원 안전리더십 향상 교육



해양에너지는 “지난 10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관리자 및 청년 진화사업’으로 광주경총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송창영 광주대 교수 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 초청돼 강의를 진행했다. 송교수는 안전관리 체계도, 안전 마인드, 리더십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이 갖춰야 할 안전리더십의 핵심 요소들을 소개하는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조직 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매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마인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정기 운영하고 있다. 또 매월 4일을 ‘안전문화 DAY’로 지정해 팀별 안전개선활동, 사고사례 공유 및 토론, 위험 요소 발굴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회복력 잃은 한국 경제…첫 ‘네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 가능성

1년간 반등 못 해…저성장 고착
“올해 성장률 0~1%에 머물 듯”

한국 경제가 회복력을 잃고 정체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치면서, 성장률이 역대 처음으로 4분기에 걸쳐 0.1%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 자체가 2% 안팎까지 하락한데다, 불안한 정치 상황과 소비·투자 등 내수 체력조차 취약해 진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률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예고대로라면 24일 공개될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도 0%를 밑돌거나, 플러스(+)를 유지한다고 해도 0.1%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계의 판단이다. 지난해 2분기 -0.228%, 3분기 0.1%, 4분기 0.066%에 이어 네 분기째 0.1%를 넘지 못하는 사실상 저성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공식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0년 이후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이 장기간 0.1% 이하에 머문 사례는 없었다. 1997년 외환 위기때와 코로나19 팬데믹때에도 심각한 경제 충격을 입긴 했지만, 반등과 회복을 이어갔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 2025~2029년 연평균 1.8% ▲ 2030~2034년 1.3% ▲ 2035~2039년 1.1% ▲ 2040~2044년 0.7% ▲ 2045~2049년 0.6%까지 계속 하락할 것으로 경고했다. 한국 경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블룸버그가 지난 10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42개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1% 수준이다. 한은의 2월 예상치(1.5%)보다 낮다. 0%대 성장률을 점치는 기관도 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캐피탈 이코노믹스(0.9%), 씨티그룹(0.8%), 하이투자증권(0.8%), ING그룹(0.8%), JP모건(0.7%) 7개 기관이 한국 경제가 올해 1%대 채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카드론 금리 평균 15% 육박 레고랜드 사태 후 최고 수준

‘서민 급전 대출 통로’인 카드론 금리가 레고랜드 사태 당시인 202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3월 카드론 금리 평균은 연 14.83%로, 지난 2월 말(14.64%) 대비 약 0.19%p 올랐다. 이는 작년 3월(14.46%) 대비해서는 0.37%p 오른 것으로, 2022년 12월(14.84%)에 육박한다. 카드론 조달금리인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가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같은 해 11월 6%를 넘어서는 등 급등했다가 채권시장 안정과 기준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올해 들어 2%대로 내려온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다. 작년 10월과 11월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카드론 금리 상성이 지속되면서, 특히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작년 3월과 올해 3월 900점 초과 고신용자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1.89%로 동일했으나,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평균 금리는 17.34%에서 17.66%로 0.32%p 올랐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상의 지역 기업체 공공조달 실무 교육 성료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지난 18일 지역 기업체 임직원을 90여명 대상 공공조달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조달 시장은 196조원 규모, 국내 총생산의 9.8%에 달하며 조달업체수는 2018년 40만915개사에서 2024년 57만2118개사로 42.7% 증가할 만큼 큰 시장이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관련 정보·업무 능력 부족 등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포함한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광주상의의 설명이다. 광주상의는 지역 중소기업의 전자입찰·다수공

급계약에 대한 활용·이해도도를 높이고 지역 기업의 공공·민간 입찰에 대한 낙찰률과 공공조달 납품기회를 높이기 위해 광주시와 공동으로 교육을 마련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 정보 제공 사업과 다수공급자 계약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지역 기업을 돕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V3, 월드카 어워즈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아, 2년 연속 최고차 배출

기아가 2년 연속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배출했다. 기아는 “최근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열린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EV3가 최고 상인 ‘세계 올해의 자동차’(WCOTY)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출범한 월드카 어워즈는 ‘북미 올해의 차’(NACTOY), ‘유럽 올해의 차’(COTY)와 더불어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불린다.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30개국 자동차 전문가 96명이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해 부문별 올해의 자동차를 뽑는다. 기아는 지난해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으로 세계 올해의 차를 거머쥔 데 이어 올해는 콤팩트 전기 SUV EV3로 2년 연속 최고 자리에 올랐다. 기아는 2020년에도 대형 SUV 텔루라이드로 같은 상을 받은 바 있어 기아는 자사 차량을 3번이나 세계 올해의 차에 올렸다. 텔루라이드는 당시 한국 브랜드 최초로 해당 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기아는 쏘울 EV(2020 세계 올해의 도심형 자동차), EV6 GT(2023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등을 포함해 월드카 어워즈에서 6년간 총 6개의 상을 받았다.

EV3는 기아의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내놓은 전략 모델로, 내·외관은 기아 디자인 철학 ‘오픈짓 유나이티드’에 기반해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이 중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은 국내 산입부 인증 기준 501km, 유럽 WLTP 기준 605km의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다. 아울러 차량은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회생제동 단계에서 가속, 감속, 정차를 할 수 있게 한 ‘i-페달 3.0’이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됐다. EV3는 세계 올해의 차 외에도 ‘2025 영국 올해의 차’, ‘2025 핀란드 올해의 차’, ‘2025 덴마크 올해의 차’,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 콤팩트 SUV 부문, 영국 ‘2024 탑티어 어워즈’ 크로스오버 부문 등을 거머쥐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도 최고 상인 ‘올해의 차’를 비롯해 ‘올해의 전기차’ 및 ‘올해의 이노베이션’ 상을 받았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이번 수상은 EV3가 동급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세계, 호남 최초 ‘프레드’ 부티크 오픈

프랑스 하이주얼리 브랜드

광주신세계는 “호남 최초로 프랑스 하이주얼리 브랜드 ‘프레드’ 부티크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광주신세계 프레드 부티크는 브랜드 창립자인 ‘프레드 사무엘’의 남프랑스 리비에라에 대한 매종의 ‘뉴부신 경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부티크는 매장 내 아치 형태의 디자인 등 고전과 현대 건축의 조화를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프레드 사무엘이 경험하고, 브랜드 창립에 영감을 받은 리비에라의 푸른 바다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게 신세계측의 설명이다. 특히 부티크 전면의 아이보리 컬러 파사드는 리비에라 해안의 모래를, 부티크 내부의 루프 패턴은 프레드 고유 컬렉션인 포스텐을 연상시킨다. 세부적으로 매장 내 브라이덜 존은 리비에라의 상징적인 문양으로 대표되는 ‘샤랑’, ‘결합’, ‘영원’을 의미하는 3가지 프레스코 디자인을 통해 사랑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재해석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 프레드 부티크에서는 프레드만의 독창성과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호남권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프레드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68회)						2등 보너스숫자
당첨번호						29
9	21	24	30	33	37	
등위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3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4
3	5개 숫자일치					3,514
4	4개 숫자일치					166,163
5	3개 숫자일치					2,712,545